

## 한 해를 보내며



다사다난했던 2002년도가 저물어 간다.

지금 우리는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일년을 되돌아 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때이다.

올해 국내 IT 산업은 세계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산업 수출 151억 1000만 달러 중 29.9%를 점유했고, 무역수지는 전체 산업 무역수지 흑자 12억 9000만 달러를 웃돌아 다른 부문의 적자를 IT산업이 만회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을 달군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에서 세계의 눈과 귀가 되어 뛰어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국내에선 초고속인터넷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며 인터넷 사용의 양과 질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전자정부 체제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e-코리아를 건설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전자정부 서비스(G4C)를 더욱 발전시키고 차세대 '모바일 정부(m-Government)' 구현과 시·도 행정정보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모두 750억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하는 등 IT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또한 중점 육성 품목을 전문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실적과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유망 중소 정보통신기업을 선정, 내년부터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지원, 정보통신 분야 핵심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협회도 올 한 해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더욱 다양하고 폭 넓은 민·관의 가교 역할에 충실했다.

지난 2월 「정보통신산업 주요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부의 각 부처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사업 정책에 대한 비전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 박람회인 「엑스포컴 코리아(EXPOCOMM KOREA) 2002 전시회/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 정보통신 기술 동향 및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해 주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 지난 10월에는 「Telecom & Satellite 2002」를 열기도 했다.

리눅스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임베디드 리눅스활성화 세미나」를 열어 꾸준한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씬클라이언트 표준규격 작성과 국내 세미나, 기술시연회 등의 개최와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씬클라이언트 협의회」를 창립했다.

차세대 IT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홈 네트워크, POST PC, Thin Client 등의 인터넷정보가전산업과 공개 SW/임베디드 리눅스 및 음성정보처리산업에 대한 기술 및 산업 동향과 기술개발 정책방향 등을 소개하고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차세대 IT 산업 세미나 2002」를 개최했다.

협회는 또한 ASEAN+3 국가의 정보통신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IT산업관련 업체와 기관들이 정보 및 의견을 함께 교류하고 역내 국가의 IT 산업 분야의 사업기회 확대 및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ASEAN+3 정보통신민간협의회 창립총회 및 전시회 2002」를 지난 11월 개최했다.

새 천년 정보통신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올해로 9 회째를 맞은「멀티미디어 기술대상」도 역시 계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술에 대한 관심과 발전상을 적극 반영하여 「제1회 모바일 기술 대상」을 제정하여 기술 발전에 기여한 업체를 수상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없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위원회」는 공통 DB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시스템 보안 관련 정부, 학계, 연구계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시행은 물론 쇼핑몰 포털 ISP 이동통신사 등 업계가 중심이 되어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 협의회」를 출범하여 업종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약 개발 및 캠페인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또 정보보호마크의 국제 신인도 제고와 국내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사업자의 해외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한일 상호인정 협약」을 지난 9월 체결하기도 했다.

정부와 업계의 상호간 대화의 장으로서의 「정보통신포럼」은 업계의 의견이 정부의 정책 수립에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창업 붐 조성 및 신규고용창출을 위해 마련된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도 올해 4회째를 맞아 날로 뛰어난 기술 아이디어가 채택되며, 우수 벤처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2003 IT산업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올 한해의 정보통신산업 결산과 내년도 산업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 업계 관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본 협회 부설 기관인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는 인터넷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터넷 인증시험」과 「리눅스 마스터」과정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갈수록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무선인터넷관리사」시험을 신설해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2002년은 국내 IT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성숙의 시간을 가진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개발과 산업의 성장·발전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내구력을 키운 것이다.

협회도 그동안의 행보에서 더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는 정보력과 대 회원사 서비스로 21세기 국가 경쟁력 향상과 회원사의 이익증대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물심양면 많은 도움을 주었던 회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건승하시길 기원한다.

2002년 12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  
정 장 호